

K-푸드, 해외 K-외식·K-급식 연계로 수출 활로 넓힌다!

- K-외식프랜차이즈 기업 수출 시너지 도모, 삼계탕·참외 등 K-푸드 소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 K-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로 베트남에 진출한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급식과 연계하여 K-푸드를 홍보하는 한편,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를 방문하여 농업 ODA 사업 성과를 점검하였다.

< 베트남 진출 K-외식프랜차이즈 기업 간담회 >

4월 22일(수) 오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K-외식프랜차이즈 5개사(롯데리아, 두끼, 본촌, 금복주류, 목구멍)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이 우리 외식기업 진출 3위이자 K-푸드 수출 4위 국가인 만큼, K-외식과 K-푸드 수출의 동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석한 기업들은 K-식재료에 대한 현지 인식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맛과 품질이 탁월한 K-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 K-식재료 사용 관련 애로로는 물류, 검역(한우·한돈 등)·통관·식품 규제 등 비관세장벽, 마케팅 지원 등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물류 부담 완화, 현지 규제정보 제공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급식 연계 K-푸드 홍보 >

4월 23일(목)에는 박닌에 소재한 한화비전 공장 구내식당(아워홈 운영)을 방문하여 현지 근로자들과 삼계탕, 잡채, 김치, 참외, 유자 음료를 점심으로 함께 하며 K-푸드를 소개하고 현지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메뉴인 '삼계탕'은 베트남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보양식으로 소개되었으며, 최근 타결된 열처리가금육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초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디저트로는 수출 2년차를 맞이한 '참외'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후과일로 소개되었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현지 근로자의 호평을 받았다.

이 날 아워홈 베트남법인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아세안지역본부는 K-식재료 수출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에 K-푸드 사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송 장관은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남양유업이 베트남 유통 대기업 '푸 타이 홀딩스(Phu Thai Holdings)'와 체결한 국산 조제분유 수출계약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내 유제품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700억 원 규모(2026~2028년)의 수출계약은 국산 유제품의 수출 판로를 넓히고 국내 낙농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농업 ODA 현장으로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방문 >

4월 23일(목) 오후에는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NCVD*)를 방문하여 농업 ODA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NCVD는 동물질병 진단 및 검사, 관련 연구개발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간 농식품부는 2차례 ODA 사업(1차: 2014~2018, 2차: 2022~2025)으로 시설 구축과 기자재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방역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 National Center for Veterinary Diagnosis

송 장관은 진단센터의 시설과 연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 하였으며, 풍 득 띠엔(Phung Duc Tien)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ASF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가는 데 한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K-외식 및 K-급식 기업의 유통·소비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수출된 K-푸드가 현지 대량 소비 채널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물류 단계별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수출기업과 K-외식 및 급식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사무관	이미영 (044-201-2170)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하종수 (044-201-2031)
		담당자	서기관	문경덕 (044-201-2014)
			사무관	왕희대 (044-201-2036)